

이재명, 내부 결속 다지기... 先 통합 後 민생 행보

오늘 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가결과 징계 논란도 매듭 다음주 과학자와 만남·민생 간담회·이태원참사 추모대회 참석 추진

단식 후유증에서 회복해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부 통합에 집중하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은 필패'라는 인식 속에 내부 단속에 먼저 방점을 찍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 비명(비 이재명)계의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는 점에서 내부 결집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시스템 공천에 의한 공정한 공천 방침을 다시 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전·현직 원내대표와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표를 향해 대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했던 홍 전 원내대표와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광온 전 원내대표, 대선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박홍근 전 원내대표까지 계파를 아우르는 구성이다.

이는 당부 복귀와 함께 자신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때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겠다고 한 데 더해 이 모임 자체가 당내 통합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 대표가 초선인 만큼 당 운영에 있어 다선인 전·현직 원내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총선 승리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우원식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나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이 대표가) 총선 승리가 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통합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당내 결집을 보다 단단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 공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인선에 있어 비명계 및 중도 성향 인사를 발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명계 인사는 "대표는 통합을 외치지만 실무진에서 비명계에 공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시스템 공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당내 통합과 결집을 위한 마무리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와 '가결' 징계 논란 등 통합 이슈를 매듭짓고 나면 다음 주부터 민생 행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민생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안 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다져야 내년 총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생 개선에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다음 주부터 이어갈 민생 행보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행안위·과방위·정보위 간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조와 구체적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현상 방류가 어려울 수 있어 국회에서의 간담회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으로 고충을 겪는 과학자와의 만남 등을 고려 중"이라며 "이 밖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큰 민생 분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되 정부의 실정을 비판·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툴"

"보안점검 압박하더니 15개 점검도구 남겨...진상조사해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안 점검(컨설팅)을 진행한 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를 다수 남겨놓았다고 25일 야당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병원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앞서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은 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2개가 남아있는 것을 자체 인지해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추가 확인 결과 총 4개 시스템에 15개의 점검 도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구 파일 이름 등으로 미뤄볼 때 명백한 해킹 툴 같다고 조 언했다"며 "지금도 선관위가 내부 파일을 자체 조사 중이어서 얼마나 많은 점검 도구가 더 발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활성화돼 있더라도 특정 시기에 활성화가 가능한 파일도 있을 수 있다"며 "보안

점검이 선한 의도였다면 국정원 스스로 나서 모든 추진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아울러 국정원이 특히 헌법기관 중에서도 선관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보안 점검을 요구해 이번 점검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고, 감사원만이 이에 응해 2주간의 홈페이지 보안 점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 대법원, 헌재는 보안 점검에 응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유독 선관위에만 집요하게 점검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이처럼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압박하고 흔적까지 남긴 것을 '선관위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다른 수단을 통해 국정원의 선관위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국회 찾아 지역 예산 확보 활동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25일 화순군과 강진군 공무원들과 함께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찾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 행보를 했다.

김 위원장은 송선석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만나 화순군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용역비 10억원)과 강진군 '월출산국립공원 탐방 기반 시설 조성사업'(총 사업비 190억원)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을 내년 국회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만나 '전남 화순탄광 폐광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구례군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양수발전소 유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 16개 군이 인구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예산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가 절실하다"며 "내년 예산심의가 끝나 는 날까지 전남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감 브리핑

"남선연탄 폐업...이용 세대 연료 전환 시급"

이용빈, 시설 전환사업 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25일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공장인 남선연탄 폐업에 따라 동절기 연탄을 사용하는 4300여 세대에 대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전남 한국에너지재단 등 12개 기관 국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탄이용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도시가스·LPG 등 연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연탄공장들이 갈수록 휴폐업이 늘어나 연탄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탄을 난방 연료로 이용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현재 연탄을 이용하는 8만세대 중 절반에 달하는 4만5천여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에 게 "재단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효



율 개선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보일러 교체나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연탄사용세대에 대해 연료 시설 전환 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난방연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탄사용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나 LPG배관망사업단을 통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태양광 설치 등 연료 전환을 고심해야 한다"며 "산업부와 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연탄사용세대가 앞으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난방연료 전환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영남 한국에너지공단 사무총장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테리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리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